



예언자 하바국

제단 분리판의 일부

1497, 나무에 템페라, 66.5X180cm

키릴로 벨로제르스키 수도원 박물관, 러시아 키렐로프

입당송 | 에스 4,17㉔-㉕ 참조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 하바 1,2-3; 2,2-4

화답송 | 시편 95(94),1-2,6-7ㄱㄴㄷ,7ㄹ-9(㉔ 7ㄹ과 8ㄴ)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2티모 1,6-8,13-14

복음환호송 | 1베드 1,2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 루카 17,5-10

영성체송 |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학교 총대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는 가난한 사제들의 모임인 프라도회가 금년으로 한국 진출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프라도회에는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을 방문한 총장 신부님께서 여러 회원이 보는 앞에서 서약자 명단 중 1번인 제 이름에 만년필로 줄을 그으며 “구 주교는 이제 더 이상 프라도 회원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프라도회 역사 초창기에 제가 책임자로 일하던 때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신학생 관심자들을 위한 피정을 가졌는데 저는 본당 일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들을 동반하던 신부님들이 몇 번이나 전화해서 “학사님들이 대표 신부님을 보고 싶어 하네요!”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바빠서 참석은 어렵지만, 대신 기도 안에서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며칠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외출을 하였다가 늦게 돌아오니 사제관이 시끌벅적한 것이 아닌가! 피정을 마친 다른 교구의 신학생들이 “대표 신부님이 계시는 사목 현장에 한번 가 보자!”라고 하여 모두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을 위해 ‘짜파게티’ 파티를 열었고, 모두 사제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루카 17,6)

믿음은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으뜸 덕목은 ‘인간적인 신뢰’라고 하겠습니다. 대신덕(對神德)으로서의 신앙도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히브 11,1)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정화의 어두운 밤을 견고 있는 인간 영혼의 청정무구한 순수한 상태를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상태 안에서 하느님 은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이를 ‘조명(照明)의 단계’ 또는 ‘주부적 관상’(contemplatio infusa)에 들어가는 때로 보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신앙 안에서 충실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무의한 종입니다. 단지 저에게 맡겨진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예언자 하바룩

하바룩은 구약의 열두 소예언자 중 하나입니다. 그의 예언서의 시작은, 악인에게 의인이 고통받는 정의를 지 못한 세상에 대하여 부르짖어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불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바룩은 자주 귀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복음에서 좋은 본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여 봉사하는 자임을 일깨워 줍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되어 해야 할 일을 할 이는 바로 우리입니다.

성화 해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신상훈 아우구스티노, 추준영 마리아 | ME 주말 체험자 부부

주님의 선물

빈첸시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우리는 부부로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34년, 시간으로는 297,840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을 맹세한 혼인 서약, 혼인 반지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윽한 눈빛, 감동적인 그 순간은 마치 영화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 올리버와 제니퍼의 그것처럼 영원히 빛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빛나던 시간은 찰나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짝인데, 달라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격, 식성, 좋아하는 것, 취미 등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34년을 함께 살아왔는지 그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싸움의 기술도 나날이 늘어 어느덧 서로에게 상처는 주되 큰 싸움은 피하는 법까지 터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비 온 뒤 고인 웅덩이처럼, 언제라도 휘젓기만 하면 흙탕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의 반복인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본당 부부님께서 ME 주말 모임을 권해주셨습니다. ‘좀 다투긴 해도 남들도 이 정도는 다투며 살지 않나?’ 왜 우리 부부에게 ME를 권하시는지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단둘이 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온 터라, 2박 3일 여행가는 마음으로 편하게 ME 주말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ME 주말에 가지 않았다면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웃을 통해 오신 예수님! 주말 체험 이후 저희 부부는 의견이 다를 때 일단 멈추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 저희 부부는 두 달간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모습의 순례자

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순례자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배낭에 한가득 짐을 넣고 걷다가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 꼭 필요한 짐만 남기고 전부 버리는가 하면, 어떤 순례자는 돈을 아끼느라 엄마의 등산화를 빌려 신고 걷다가 결국 엄지발톱이 빠져 도저히 걸을 수 없어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 가는 순례길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이기심과 교만, 세속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주님께 다가가는 데 발목을 잡고 있었고,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던져버렸듯 저 역시 그것들을 버려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아우구스티노의 겸손과 겸소함은 저의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혼인성사를 완성시키고자 친히 최고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1 다양한 종교 전통 간의 협력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 평화와 정의와 인간의 형제애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박미정 노엘라 | 작가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16살 수아(가명)는 지적장애인 엄마의 보호자이며,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 윤재(가명, 13세)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수아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

해 먼 거리의 통학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엄마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수아는 아동 학대(방임) 신고 대상이 되었고, 보호자의 부재로 외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아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을 포기했고, 하나뿐인 동생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힘겹게 이어오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용실에 갈 돈이 없어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수련회도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참석할 수 있었지만, 전학으로 인해 앞으로 지출해야 할 교복비, 체육복비, 교과서비, 문제집비는 어린 수아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과 상실감 너머 일상이 되어버린 경제적 어려움은 아직 어른의 돌봄이 필요한 수아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중국 국적의 민화(가명, 36세) 씨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딸 하연이(가명, 8세)를 낳았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잠시, 남

편의 무자비한 폭력에서 도망쳐 나온 민화 씨는 어린 딸과 함께 노숙인 쉼터와 이주여성 쉼터를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폭력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재외동포 비자 신분으로는 생계비나 의료비 등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하연이는 불안정한 엄마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노숙인들 틈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쉼터에서 만난 수녀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두 모녀는 아직도 거리 위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고(病苦),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해 삶의 위기를 맞았지만 공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지만, 2년 전 외부 후원이 중단된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아나 민화 씨처럼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현실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원칙이나 기준, 몇 장의 증명서 때문이 아니라 윤재나 민화 씨와 같은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종교,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모든 이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10월 4일~3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을 위해 씁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6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지휘관 루돌프 회스와 그의 아내 헤드비히는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합니다. 아이들과 수영하러 가고, 정원을 돌보고, 정원에 꽃을 심고 가꾸는 등, 가정의 나른하고 안정된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평안해 보이는 삶 바로 뒤에, 참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담장 너머에는 아우슈비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휘관 루돌프는 아우슈비츠의 지휘관입니다. 어렴풋이 총소리, 비명소리, 트레인 소리, 화장터 소리들이 들리지만 이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출 발령이 나자 루돌프의 아내는 자신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냐며 화를 내고 남편만 전출을 보냅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루돌프가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비교적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 가정적이기까지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끝내 수용소의 내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담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리로’ 전달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짐작하게끔 만들 뿐입니다.

이 영화는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듯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주변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만의 텃밭을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공범일 수 있어요.”

2013년 7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선출 이

후 처음으로, 바티칸이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다른 아닌 이탈리아 람페두사(Lampedusa)였습니다. 교황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신 것은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이주민들을 태운 선박들이 지중해에서 전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황님은 섬에 도착해 난민선을 개조해 만든 제대 위에서 참회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해안에 시신들이 떠밀려오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도 세상이 여전히 안락의 문화에 젖어 있으며,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타인의 울부짖음에는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세계화된 무관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 일이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라며 개탄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비윤리적인 일이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무수한 생명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죽어갑니다. 이에 교회는 다양한 목소리로 동참을 요청하며 평화와 생명, 하느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경시를 멈춰 달라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자고, 전쟁을 멈추자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뒤로 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텃밭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안락의 문화 안에서,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말씀과 신앙



기수희 로사리아 | 청년성서모임(등촌1동성당)

주일학교 행사 후 귀갓길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 보던 그 순간, 손을 흔들어 주시던 한 신부님의 모습이 제 신앙생활의 첫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삶에 지쳐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를 성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사 후 신부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이 옷을 입고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며 저를 성가대석에 앉히셨고, 그렇게 제 청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열정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의 행동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봉사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주는 말씀 달력 이미지도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건 없는 헌신과 봉사의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보다는 저를 이끌어준 사람들에 대한 의리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차가워졌던 제 마음은, 묵묵히 기다려준 그들 덕분에 서서히 녹아들었고, 결국 밀어내기만 했던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저의 신앙뿐 아니라 삶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창세기 연수 이후,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늘에 별로 떠나보내는 큰일을 함께 겪으며 많은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캠프 준비를 시작으로 음악회, 성가제까지, 직장 외의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어려웠던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활동이 시작되면서 대표 봉사자의 부탁으로 말씀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당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시작하게 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첫 그룹 봉사를 위해 노트를 읽고 내 묵상과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말씀을 삶에 접목시키고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 공부와 본당 활동을 병행하며 말씀의 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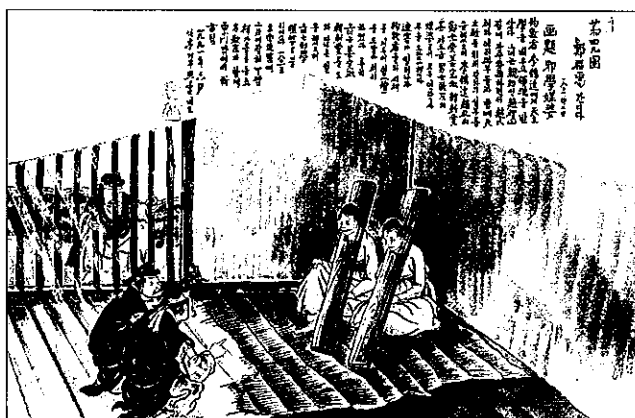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해, 저는 본당 대표 봉사자로 첫 해를 보내게 됩니다. 식었던 제 마음은 곁에 다가온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행동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많은 청년들에게 말씀 공부를 추천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건넨 권유를 청년들은 기쁘게 받아 주었고, 우리의 성서 모임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봉사의 순간들이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말씀과 함께하니 본질에 대한 질문을 주기적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봉헌이 신앙의 척도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말씀 공부 안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년을 사랑하고 그분께 이끌고자 했던 이들의 따뜻함, 그리고 온유하지만 확고했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은 실천이 되어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흩어져 나갑니다.

10

요망한 그림과 사악한 책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부녀자들에게 사화(천주화)를 퍼뜨린 죄로 형조에 갇힌 정복해 칸디다 모습을 그린 그림. (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사화징의》에 실린 <요화사서소화기(妖畵邪書燒火記)>는 천주교 신자들에게서 압수해 와 불태운 교리서와 성물 목록입니다. 이 중 교리서 책자 외에 눈길을 끄는 것은 낱장 또는 두루마리 묶음 형태의 필사본들입니다. 한글 본 서화서를 비롯해, 작은 크기의 종이에 베껴 쓴 수백 장의 필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현의 안국동 집 구들장 아래에서는 무려 84종의 교리서가 한꺼번에 튀어나와 관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 목록은 당시 조선 교회의 교리 지식 수준을 웅변합니다. 이밖에 3백여 장의 작은 종이 쪽과 3백 장이 넘는 한글 필사 및 두루마리 외에 31 조각의 종이가 더 나왔습니다. 세 폭의 비단 보자기와 작은 광목 보자기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이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침례표 3장과 220여 장의 필사도 나왔고, 개중에는 책으로 묶으려고 베껴 썼다가 미처 제본하지 못한 종이, 후보성인 명단을 인쇄한 것도 수십 장 나왔습니다.

무교동 인근 군기시(軍器寺) 앞 과부 김희인의 집에는 김홍년, 이홍임, 이어린아기, 김경애 등의 과부와 동정

녀가 함께 생활하며 교리책을 필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에서 교리서 16권과 교리서를 베껴 쓴 456장 및 134건의 한글 필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신자들이 꼭 외워야 할 기도문이나, 미사 전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겠지요. 요망한 그림이라고 불린 성화 족자도 3개나 나왔고, 성모 마리아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십자패를 단 목주가 6개, 거기에는 자춧빛 휘장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곳에서 미사도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압수품 목록은 당시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적 관심사와 교리 지식 수준, 미사 전례 등을 알게 해주는 드롭 박스 같은 것입니다. 교리서 외에 《성녀 간디다》, 《성녀 테레사》, 《성녀 아가다》, 《성 안드레아》, 《성부 마리아》와 같은 성인전은 당시 우리나라 교인들이 특별히 사랑했던 성인 성녀들에 대한 취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백 장의 종이들에서 우리는 당시 교회 본부가 각처의 신자들에게 교리를 보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외우고 예수 마리아를 외우면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만으로는 전교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한 장의 종이쪽은 그가 천주교 신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으로 목숨과 맞바꾸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구들장 밑에 숨기고, 천장 위에 감추고, 베개 속에 넣고, 땅속에 묻었어도 포교들은 용케 찾아냈습니다.

압수된 종이쪽에 적힌 기도문, 하도 들고 외워 나달 나달해진 낡은 종잇장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이 목숨과 바꿔 끝내 지키려 했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위령기도'를 바칩시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6년 10월 7일 김원영 아우구스티노 신부(67세)
- 1943년 10월 7일 김윤근 요셉 신부(65세)
- 1948년 10월 12일 최상준 시몬 신부(33세)
- 1950년 10월 6일 서기창 프란치스코 신부(50세)
- 2009년 10월 11일 최광연 모세 신부(73세)
- 2017년 10월 11일 박순재 라파엘 몬시뇰(80세)

10월 6일(월)~10일(금)은 추석 및 교구청 휴일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니다.
-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청 알림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6년 1월 12일~23일(1박12일)
지도: 김성민 신부 / 주관: 성서못자리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향심기도 4박5일 집중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10월 22일(수) 17시~26일(주일) 점심 식사 후
곳: 명상의 집(우이동) / 회비: 28만원
문의: 010-4565-8898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제79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 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행사 안내

- 1) '슬픔 속 희망찾기' 10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때, 곳: 10월 18일(토) 10시(자비의 기도) ·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 2) 2025년 4대 종단과 함께 하는 열린포럼
대상: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
주제: 중년 자살예방
때, 곳: 10월 23일(목) 14시~16시, 청년문화공간 JU
문의(신청): 02)318-3079(3079@3079.or.kr)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5년 대림-성탄 전례음악 심포지엄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
때: 11월 1일(토) 10시~17시30분
등록: 10월 13일(월)~24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게시판 참조
곳: 최양업홀(중림동) / 문의: 02)393-2213~5

20단 묵주기도와 토요 성모신심 미사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내용: 성모 신심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206 스페인 센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3일~17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하루일정 전국순례 접수 안내 / 문의: 02)269-0413

때: 10월 18일(토), 10월 19일(주일), 10월 28일(화)
곳: 갯세마니 피정의 집, 소양로성당, 죽림동 순교성지, 춘천교구 주교관과 교육원, 곰실공소
문의(신청): 10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6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2025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영성 강의 참가자 모집

때: 10월 21일~11월 11일 오후 7시30분~9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 회비 없음

1강	10월 21일(화) 가르멜 영성 / 강사: 윤주현 신부
2강	10월 28일(화) 골롬반 영성 / 강사: 양창우 신부
3강	11월 4일(화) 살레시안 영성 / 강사: 양승국 신부
4강	11월 11일(화) 도미니칸 영성 / 강사: 김상태 신부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갤러리1898 추석 연휴 휴관

때: 10월 3일~8일 / 문의: 02)727-2336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심리강좌(윤재연 교수), 이탈리아어(류첸마), 해금(정겨운)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안내

- 1) 사별가족 돌봄프로그램 '희망샘'
때: 10월 21일~12월 9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총8주)
곳: 생명위원회 교육실, 노들담교육관(북촌로 가회동)
문의(신청): 02)727-2354, 010-2081-6462
-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회와 미사)
대상: 낙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10월 18일(토)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 문의(신청): 02)727-2350

2027 서울 WYD 행사 안내

- 1) 2027 서울 WYD 주제가 공모
내용: 2027 서울 WYD의 의미와 주제 "용기를 내 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담은 창작곡(작사+작곡) / 11월 30일(주일)까지 접수
- 2) 2027 서울 WYD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합창단: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오케스트라: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국악기
- 3)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10월 18일(토), 11월 8일(토) 14시~19시30분
곳: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위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조
문의: 02)2230-2023, 2027 / 2027 서울 WYD 조직위

구역별장 피정

1차	11월 27일(목)~28일(금) 1박2일 / 11월 14일까지 접수
2차	12월 11일(목)~12일(금) 1박2일 / 11월 28일까지 접수

곳: 성안베르 센터 /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회비: 1인 8만5천원(차수별 선착순 95명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인문단체 알림

모임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특별 피정: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4박15일
문의: 010-5735-4578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성령미사·말씀·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향당(주차 가능) / 이창진 신부

10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0월 23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프란치스코 호소 단식 피정

주제: 비움에서 충만으로 / 문의: 010-8858-7814
때: 매월 세번째(금~주일) 2박3일 / 회비: 25만원
곳: 폰베틀알 프란치스코회(주최) 양평 수도원

글라셋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0월 12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비블리오 드라마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때, 곳: 10월 11일(토) 10시~17시, 본원(혜화동)
대상: 만 40세 이하 남녀 청년 / 회비: 4만5천원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제주 '푸른곰 제주섬'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씀초대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사목위원·구반장) 환영
때: 10월 30일~11월 1일·11월 11일~13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난, 주님께 무엇을 봉헌했나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0월 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우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0월 17일(금)~22일(월)·11월 14일(금)~17일(월)·12월 19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8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미사(전국 행사)

때, 곳: 10월 13일(월) 10시~16시(미사 14시), 솔피 성지(대전교구) / 출발: 8시, 가톨릭회관(명동)
버스표 판매: 좌석당 1만9천원 /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자연 피정

내용: 기도와 자연 속에서 주님과 머무는 시간
때: 10월 11일(토) 오전 9시 /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곳: 홍천성당(주일 미사·전대사) / 회비: 4만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사랑이 피는기도모임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1월 10일~13일·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12월 31일 2026년 1월 3일(연말연시·한라산), 체나콜로 대피정 자연순례 10월 16일~18일·10월 18일~20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 15일~18일·12월 1일~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산돌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때: 위령성월 피정 11월 2일~4일, 제주순례 피정 10월 12일~14일·10월 27일~29일·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11월 22일~25일(추자도 성지순례),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2026년 1월 9일~11일·1월 15일~18일·1월 23일~25일·1월 30일~2월 1일·2월 6일~8일·2월 22일~24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남이·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10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철야기도·성령세미나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미사·안수, 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1) 10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10월 11일(토) 12시~17시30분 / 강사: 한연흠 신부

2) 삼성산 화요 철야기도·탈리타 쿨 일어나라

때: 10월 14일~12월 23일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

3) 성령 세미나

때: 10월 18일~12월 20일 매주(토) 12시~17시30분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0월 7일 추석으로 쉽니다 10월 14일 이재을 신부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국내	12월 6일~9일(부산 8곳·마산 6곳), 12월 18일~21일(대전 23곳) /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베트남 성모발현지	2026년 1월 8일~12일	대한항공
홍콩·마카오·심천	2026년 1월 26일~29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0월 11일(토)~12일(주일), 12월 20일(토)~21일(주일)
3박4일	10월 30일(목)~11월 2일(주일), 11월 27일(목)~30일(주일)
8박9일	10월 17일(금)~25일(토), 11월 5일(수)~13일(목)
40일	10월 14일~11월 22일, 12월 17일~2026년 1월 25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1월 7일 10시~15시30분
성모님과 함께하는 음악 피정	10월 11일(토) 10시~16시
성모님과 함께하는 무료가를 피정	10월 25일(토) 10시~16시
수험생을 위한 기도 피정	11월 13일(목)
가톨릭시간과 함께하는 대참목 피정	11월 28일(금)~30일(주일)
요한묵시록과 함께하는 대참목 피정	12월 10일(수)~13일(토)
송년 피정	12월 31일(수)~2026년 1월 1일(목) / 선착순 접수
노베나 기도 접수	11월 2일~10월 / 미사·위령기도 봉헌
단체 피정(자처·위탁) / 개인 피정 가능	

10월 도심 속에 하루 피정 '쉽'

지음 받음, 생명의 실존, 삶의 주도성을 하느님께 / 문의: 02)726-0700
때: 10월 25일(토) 10시~17시
곳: 전진상 영성센터(주최, 명동) / www.jiscen.or.kr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 문의: 02)3276-7794

때, 곳: 12월 26일(금)~2026년 1월 4일(주일)·1월 8일(목)~17일(토)·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 주최: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가톨릭성서모임 독서클럽 / 문의: 02)824-4363

때: 10월부터 / 접수: biblemove.com

새천년복음화학교 10월 영성교육·미사

때: 10월 12일(주일) 13시30분~16시20분 / 02)753-8765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주제: 희망과 찬양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템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한글반·영어기초 ABC 영어회화 / 문의: 02)727-2471

광희문성지 교회사와 성지순례 특강

회비: 1만원 / 문의: 02)2234-1456
조한건 신부 / 네이버카페 '광희문성지' 참조
때: 매월 첫째·셋째주(주일) 15시 미사 후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4길 14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 회비 없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접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성경통독·길잡이 그림들

강의: 창세기 매주(월), 여호수아기 매주(수) 10시~17시(파견 미사),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전철 1호선 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지혜의 샘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특별강좌

주제: 하느님의 뜻 식별·선택과 결정의 길잡이·권오면 신부 / 문의(접수): 02)3276-7799
때, 곳: 10월 17일·10월 24일·11월 14일·11월 28일·12월 12일 오후 2시~4시, 예수회센터 103호

2025년 영적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 모집(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원목자, 일반인 / 회비: 2만원
때: 11월 22일~12월 20일 매주(토) 10시~16시5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 문의: 02)3147-8653
방법: 대면(1·5주차), 비대면(2·4주차) / 10월 30일(목) 15시까지 홈페이지(hospice.catholic.ac.kr) 접수

고상·성모상·목주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강사: 김성대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이현주 회장 / 졸업미사: 구요비 총대리 주교 때, 곳: 10월 14일·21일·28일 (화) 12시30분~16시 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당일접수 가능 회비: 3만원 / 계좌: 신한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10-8477-6688

내용: 영적독서 과정(6주) /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10월 16일부터 매주(목) 19시~21시 / 회비: 10만원 곳: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 /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주최: 한국가톨릭독서모임(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2026년 서강대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3차 모집

접수: 10월 13일(월)~22일(수) / 문의: 02)705-8678 전형일: 10월 25일(토) / 모집: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개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학점은행계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홈페이지: <https://scec.sogang.ac.kr>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가을 영성학교

때: 10월 15일~11월 12일 매주(수) 14시~16시(5주간) 곳: 영성센터(명동) B201호 / 회비: 5만원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0월 15일	김현덕 신부	10월 22일	장궁선 신부
10월 29일	하형민 신부	11월 5일	최강 신부
11월 12일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장 강의 '성체조배 이렇게 해보세요' / 지도사제 파견 미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월 29일(월)~10월 20일(월) 전형일: 10월 25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 집 전 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영성·철학상담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제12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기간: 10월 9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제연합회

안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까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파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회수녀회)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사)

2025년 순교자현양음악회 예수마리아요셉 공연

모니카교회음악원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10월 11일 17시, 서울 여의도 KBS홀 본관 지휘 이상희, 연출 심준보 / 문의: 010-5245-2848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모니카교회음악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제3회 김수환 추기경 음악회

'모든 이를 위한(Pro Multis)' 음악회 때, 곳: 10월 29일(수) 19시30분,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문의: 02)2164-4466 주최: 김수환추기경연구소 / 후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문화체육관광부 티켓 예매: 10월 13일(월), 티켓링크 예매 오픈(무료)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성현동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문의: 02)887-449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 업무: 미화·시설관리·방호 등 업무(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 18일까지 이메일(jifuco@catholic.or.kr) 및 우편·방문(우 08724,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22)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곳: 성북구, 중구 /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분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10월 12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당고개순교성지 사무원 모집 / 문의: 02)711-0933

분야: 사무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근면 성실하신 분으로 사무행정, 회계, PC(한글·엑셀·파워포인트) 가능한 사무경력자 우대 업무: 사무, 회계 등 본당 전반적인 업무(2년 근속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채용시까지 이메일(dgg1839@kakao.com) 및 방문(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39-26 당고개순교성지) 접수

청담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사무행정·회계, PC 및 기타 프로그램 사용에 수월하신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 19일(주일)까지 방문·우편(우 06073, 강남구 삼성로720 청담동성당) 및 이메일(gaveraf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제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서(본사양식) 온라인 접수 접수: 본사 플랫폼(catholicbookplus.kr)-회사소개-홈페이지(catholicbooks.kr)-채용정보 / 근무조건·세부 사항은 부문별 상이하니 채용정보 반드시 확인

모집 분야	담당 업무
경영관리국	재무 회계, 인사기획 및 성과 관리
영업국	영업
물류지원팀	물류지원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0월 18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사랑의 씨앗 수녀회	10월 18일(토) 14시~17시	카라의 뜰(전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010-5528-3217
예수회	10월 25일(토) 15시	관구본부	010-2876-1540(vocation@jesuit.kr)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가끔은
허당이어도 좋다

나봉균 지음
성바오로 | 272쪽 | 1만5천원
문의: 010-2572-1365, 02)945-2972

이 책에는 평범한 신부로 살아가는 한 사제의 일상을 엿보면서 독자들이 한 번이라도 웃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기쁜 일, 아픈 일,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정성껏 담아 누구나 편히 먹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 놓은 듯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힘을 내어 다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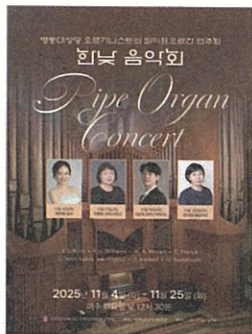


신간

송원섭 신부와
별바라기 이야기

송원섭 지음
인생산책 | 204쪽 | 1만5천원
문의: 02)1522-3864

인천교구 송원섭 신부가 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의 관장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들과 자립 준비 청년들의 삶을 함께하며 기록한 책이다. 가정의 해체, 상처, 외로움, 버거운 책임과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그 속에서 피어난 회복과 변화의 순간들이 담겨 있다. '별바라기'는 방향을 잃은 자립청소년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별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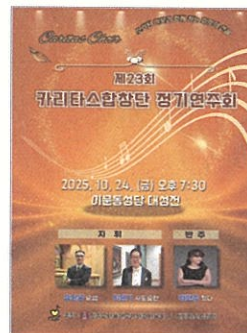


연주회

명동대성당
한낮 음악회

때: 11월 4일~25일 매주(화) 12시30분
곳: 명동대성당
전석 무료 / 문의: 02)774-1784

2025년 명동대성당 한낮음악회가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12시30분 4주동안 열린다. 명동대성당의 4인의 오르가니스트 최주용 로사, 이현수 크리스티나, 이상욱 토마스아퀴나스, 유서영 세실리아가 연주한다. 바흐의 신포니아, 베타드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변주곡 등 다양한 곡들이 연주된다.



연주회

제23회 카리타스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10월 24일(금) 19시30분, 미문동성당
전석 무료 / 문의: 010-2686-0185

사랑과 나눔의 소리를 전하는 카리타스합창단의 제23회 정기연주회가 열린다. 깊어가는 가을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삶의 따뜻한 순간을 나누는 자리에 초대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Kyrie(A.Bruckner, Mass No.3 in f minor), O magnum Mysterium(M.Lauridsen),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가사로 엮은 포레의 시실리안느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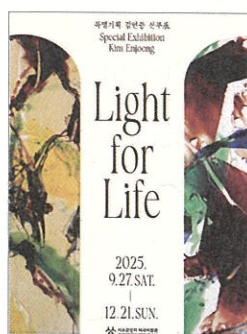


음악회

바오로팔 문화콘서트
희망과 용기의 팡파르,
금관악기

때, 곳: 10월 15일(수) 19시30분,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 / 전석 무료(사전 신청, 선착순)
신청: 바오로팔 인터넷서점 사이트
문의: 02)944-0829

성바오로팔수도회가 주최하는 2025년 바오로팔 문화콘서트 시리즈의 첫 순서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 희망과 용기의 팡파르, 금관악기>가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인문학적 해설과 함께 즐기는 금관 10중주 클래식 음악회로서, 트럼페터 성재창과 SNU Brass Society가 연주하며 금빛 선율 속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기획 김인중 신부展
Light for Life

때: 9월 27일(토)~12월 21일(주일)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시실
문의: 02)3147-2403 / 무료 전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김인중 신부의 스테인드글라스, 평면회화 뿐 아니라 세라믹, 유리 공예를 활용한 작품 약 6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시다.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고 동양과 서양을 모두 품었다고 평가받는 김인중 신부의 작품은, 기도와 성찰을 통해 화면 속에서 섬세한 색조와 찬란한 빛으로 피어난다.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레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 첫모임 : 10월 26일(주일) 오전 10시 / 304호
- 추가모집 : 11월 19일(수) 까지
- 대상 : 예비신자, 외곽교우, 첫영성체준비자
- 교리시간 : 주일반 :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일반 : 오후 7시~8시 / 304호

※ 예비신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10월 6일 (월)	오전 7시
한가위	오전 9시
	오전 11시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는 10월 2일(목)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는 미사 후에 바칩니다.

● 한가위 연휴 및 공휴일 미사

10월 7일 (화)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8일 (수)	오전 6시, 오전 10시
10월 9일 (목)	오전 6시, 오전 10시

● 10월 7일~9일 사무실 휴무입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10시

● 병자영성체

- 일시 :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성회 야외행사

- 일시 : 10월 11일(토) / 성당에서 8시30분 출발
- 장소 : 강화도 갑곶성지
- 문의 : 김무영 요셉 (010-3891-4300)

● 여성구반장 회합

- 일시 : 10월 12일(주일) 12시
- 장소 : 소성전

● 남성울프레이

- 일시 : 10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프레이

- 일시 : 10월 21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초등부주일학교 교사 모집

밝고 사랑이 넘치는 초등부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 대상 : 관심 있는 청년/자모님 누구나
- 문의 : 허보은 미카엘라 교감 (010-8484-4374)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오라메(교중미사성가대) 단원 모집

- 대상 : 영세 교우
- 문의 : 하야친타 단장 (010-6788-1588)



● 2025년 4분기 전신자 영적도서 읽기

- 권장도서 : 1. 하느님이 주신 나의 이름은
2. 궁금해요 고해성사
- 신청기간 : 9월 28일(주일) ~ 10월 12일(주일)
- 신청접수 : 사무실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 기간 : 8월 5일(화) ~ 11월 13일(목)
-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9. 2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4	750 (37.2%)	699 (34.7%)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9월 22일 ~ 9월 28일)

- 10월 12일 주보에 게재합니다.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6주일)

- 10월 12일 주보에 게재합니다.

입당	480	봉헌	210,513,511	성체	156,158,159	파견	21
----	-----	----	-------------	----	-------------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